

“전북형 그린뉴딜, 도민 체감 방식으로”

민주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난날 27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전북형 K-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가 꼭 필요하다. 전북도당이 나섰다”면서 “전국 최초로 도당 차원에서 구성된 K-뉴딜위원회 활동 결과인 종합토론회를 통해 확고한 지역 뉴딜 모델로 전북형 K-뉴딜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종합토론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안주, 진안, 무주, 장수)의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역주도형 그린뉴딜과 지방정부, 전북형 그린뉴딜의 방향, 2060 탄소중립과 신질 및 녹색산업 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무엇보다 전북형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역형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지원하고, 새만금 그린수소 산단 조성, 수소 상용차 육성 특구,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과 RE100/PPA 특구 조성, 디지털 모빌리티 특구, 동북부 농산촌 그린뉴딜 조성 등을 제안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두 번째 기조발제를 통해 “전북도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과 전북형 뉴딜 허브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훈 부지사는 지역균형 뉴딜

지역형 뉴딜 적극 추진
지자체에 교부세 지원
당정 협력체계 구축 등 제안
지방정부서 에너지자립마을 등 자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위한 뉴딜 정책 실행 등 강조

의 추진방안과 전북형 뉴딜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당·정이 함께 이끌어 가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3개월여 동안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에 구성된 각 분과별(디지털뉴딜분과, 그린뉴딜분과, 사회적뉴딜분과) 활동보고 및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방안 등을 발표했다.

디지털분과위원장인 나인호 군산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전북 데이터 댐 구축,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범도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을 제안했다.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이종희 전북대학교 교수는 뉴딜사업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시스템으로 시스텍 시스템을 언급하며,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톨, 스마트 그린 산단, 녹색 산업 등의 분야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사회적뉴딜분과위원장인 최낙관 예원대학교 교수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 안전망 119 사업, 전북형 청년 채용 뉴딜, 전북형 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날 27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중년 휴먼 뉴딜 및 일자리 구축, 전북형 히든 챔피언 발굴·육성 및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뉴딜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성기 전북연구원장의 전북형 뉴딜 용역 중간보고,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가 이어졌다.

먼저 (사)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은 “전북형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생태계 선점이 필요하다”며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명준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은 “신학력력이 강하지 않은 지역 혁신 성공사례는 없다”면서 “산업 클러스터의 성장 단계별로 혁신 전략

과 혁신 사업을 특화해 마련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혁신 도전의 지역혁신 안전망으로서 대학은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디지털 혁신본부장은 기관 자체별로 디지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이 있어야 하고, 기관간(당-정-관) 연계의 중요성과 협력 과제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역 IT 생태계와 인재 양성에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등 자발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실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연대

수립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전북연구원 중심의 사업 발굴에서 전북도 실국 중심으로 추진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역 균형 뉴딜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한 당정협의체, 시군협의체, 공공기관 협의체 등 각계각층 리더층과 협력방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를 통해 전북의 갈 길은 더 명확해졌다”며 “그린뉴딜 1번지 전북,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고, 그린뉴딜 대한민국 1번지가 되는 것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는 종합토론회 이후 주요 대학 총장 및 공공기관장 간담회 등 전북형 뉴딜사업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및 정책 제안과 전북형 K-뉴딜 허브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그린뉴딜 거점 발전 잠재력 크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문가 집담회 온라인 개최

전북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은 지속가능한 새만금 발전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지난날 30일, 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했다.



최근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함에 따라, 새만금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집담회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전북환경연합 김재병 사무처장,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 전남대학교 전승수 교수, 전주대학교 최영규 교수,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이재영 지구과학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집담회는 전북환경연합 김재병 사무처장의 새만금의 현재 상황과 해수유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듣고, 갯벌, 어업분야, 관광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새만금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제안 및 연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새만금이 해수유류로 깨끗한 수질을 확보한다면, 해양관광,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확대를 통해 전북 경제를 이끌 성장거점이 될 곳이다”라며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일자리와 환경,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진통에도 개혁으로 과감히 변화 의지 가져야”

윤석열 거취 관련... 문 대통령, “공직자들 마음가짐 더욱 가다듬어야” 수보회의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날 30일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법검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측의 갈등을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한 마지막 진통

으로 보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만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이미 달리고 있다. 경제에서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어느덧 민주주의에서도, 문화에서도, 방역과

의료에서도, 소프트 파워에서도, 외교와 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곳곳이 이겨내며 위기를 극복해왔고 희망을 만들어왔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보였다”고 돌아섰다.

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각국의 1년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상권 르네상스, 중기부 공모 선정

부안 구도심 상권 활성화 위해 추진

민주 이원택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부안군 구도심 상권(부안상설시장, 부풍로, 석정로, 번영로 일원)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총 80억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 완주)은 지난날 30일, 부안상설시장 등 부안을 일대 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안군이 상권 르네상스 대상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부안을 일대 약 6만평의 구역에 내년부터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을 들여 상권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과 청년창업 및 점포개선 컨설팅, 상인들에 대한 역량 강

화 교육 및 다양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부안군 르네상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기까지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전북도·부안군 관계 공무원,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부안상설시장 상인연합회 등 부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강조하며, “부안군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을 통해 부안을 일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부안군 관내 주요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완주군의회, 예산안 심사
대비 의정연수 실시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날 14일 행정사무감사 자체연수에 이어, 28일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의정연수를 군의회 문화강화실에서 실시했다.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원 소장을 초빙해 진행된 이번 의정연수는 ‘예산안 심사대비’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루어졌다.

참여 의원들은 제25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사례 분석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의시 주의점과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소완섭 예결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내년도 완주군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군민들의 삶에 와닿는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